

임블던 새 신화... 정상 오른 '부상 투혼'

체코 출신의 바르보라 크레이치코바(28)는 14일(한국시간) 최고 전통의 임블던 테니스 대회(총상금 5000만 파운드·약 875억 원)에서 생애 처음으로 여자 단식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뒤 "하늘에 계신 스승님이 지켜보고 있다. 믿을 수 없는 순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크레이치코바는 영국 런던의 올잉글랜드 클럽에서 끝난 임블던 여자 단식 결승에서 자스민 파올리니(이탈리아)를 2-1(6-2, 2-6, 6-4)로 꺾고 우승했다. 여자 테니스 세계랭킹 32위인 크레이치코바가 7위 파올리니를 제압한 것은 예상 밖이었다. 우승 상금 270만 파운드.

올해 허리 부상 속에 어떤 대회에서도 단식 8강을 넘지 못하며 부진하던 크레이치코바는 임블던 무대에서 통증을 이겨내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준결승에서 우승 후보 1순위로 꼽히던 엘레나 리바키나(4위·카자흐스탄)를 2-1로 제압한 데 이어 직전 메이저 대회인 프랑스로프 준우승자 파올리니까지 돌려세웠다. 이탈리아인 아버지와 가나계 폴란드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파올리니는 메이저 대회 2연속 준우승에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1세트는 178cm의 키에서 뿔어지는 서비스와 파워가 좋은 크레이치코바의 강공에 163cm의 파올리니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일방적으로 흘러갔다. 그러나 2세트에 분위기가 확 바뀌어 파올리니는 상대 첫

세계 32위 체코 크레이치코바, 결승전서 7위 파올리니 제압
"하늘의 스승께 영광"... 테니스 전설 야나 노보트나에 감사 전해

서브게임부터 브레이크해냈고, 적극적인 공세 끝에 2세트를 가져갔다. 3세트에서는 크레이치코바가 파올리니의 4번째 서브 게임을 브레이크해내면서 승부의 추는 기울었다. 흔들림 없이 자신의 서브 게임을 지켜내던 그는 마지막 게임을 듀스 접전 끝에 따내며 우승을 확정했다.

크레이치코바의 스승은 2017년 숨진 여자 테니스의 전설인 체코 브르노 출신의 야나 노보트나다. 크레이치코바도 브르노에서 태어나고 컸다. 1987년 프로에 데뷔한 노보트나는 통산 24번의 단식 우승과 76번의 복식 우승을 차지했고, 1990년 8월 복식 세계랭킹 1위, 1997년 7월 단식 세계랭킹 2위를 기록했다. 1998년 임블던에서는 단식 정상을 밟았다. 복식에서는 4번(1989년·1990년·1995년·1998년) 우승했다. 현역 시절 슈테피 그라프(미국)와 마르티나 힝기스(스위스)에 막혔던 노보트나는 은퇴 후 후학지도에 나섰다. 크레이치코바는 노보트나의 애제자였다.

크레이치코바는 "어린 시절 노보트나 코치의 문을 두드린 순간이 내 인생을 바꾼 것 같다"면서 "주니어 선수 생활이 끝



나갈 무렵 프로 선수를 계속 해야 할지, 아니면 공부해야 할지 고민 중이었다"고 돌아섰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체코의 바르보라 크레이치코바가 14일(한국시간) 임블던 여자 단식 결승에서 자스민 파올리니를 꺾은 뒤 시상식에서 우승 정반에 입을 맞추고 있다. UPI=연합뉴스

올림픽 은메달에 18억 쏜 사우디... 영국·스웨덴 포상금 X



사우디아라비아의 타레그 하메다는 도쿄올림픽 가라데 경기에서 은메달을 획득해 정부로부터 포상금 약 18억 원을 받았다. 로이터=연합뉴스

홍콩 올림픽위원회는 이달 말 개막하는 2024 파리올림픽 개인전 금메달리스트에게 포상금 600만 홍콩 달러(약 10억 원)를 준다고 10일 발표했다. 이에 최근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지가 최근 나라마다 천차만별인 올림픽 메달 포상금에 대해 보도했다.

타임에 따르면 최근 각종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 또는 개최하며 막대한 돈을 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2021년 도쿄올림픽 당시 은메달리스트에게 500만 리얄(약 18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도쿄올림픽 가라데 경기에서 타레그 하메다가 은메달을 획득했다.

아직 올림픽 금메달이 없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번 파리올림픽에 대한 메달 포상금 지급 계획을 밝히지 않았으나 만일 금메달이 나온다면 2021년 도쿄 대회 은메달리스트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할 가능성이 크다.

싱가포르도 홍콩과 비슷한 규모의 메달 포상금을 책정했다. 싱가포르의 개인전 금메달에 100만 싱가포르 달러(약 10억 원)정도를 줄 예정이다. 싱가포르의 올림픽 금메달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 수영에서 유일하게 나왔다.

포상금 규모가 우리 돈으로 1억3000만

원 정도인 10만 달러를 넘는 나라는 이들 외에 인도네시아·카자흐스탄·말레이시아·모로코·이탈리아·필리핀·헝가리·코소보·에스토니아·이집트 등이 있다.

인도는 금메달리스트에게 정부에서 750만 루피, 인도올림픽위원회에서 1000만 루피를 별도로 지급해 총 2억8000만 원 정도에 이른다. 말레이시아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게 포상금 약 3억 원 외에 외제차를 별도로 시상하고, 카자흐스탄은 아파트 한 채를 준다. 반면 영국·노르웨이·스웨덴 등은 메달리스트에게 별도 포상금을 주지 않는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K리그1 떠난지 9일만에 부산 사령탑 된 조성환

프로축구 K리그1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물러난 조성환(54사진) 감독이 열흘도 지나지 않아 K리그2 부산 아이파크 모로코·이탈리아·필리핀·헝가리·코소보·에스토니아·이집트 등이 있다.



23에 그쳐 9위에 머물러 있다. 팀을 이끌던 박진섭 감독이 이달 6일 부천FC 1995와 홈 경기 이후

부산 구단은 14일 제25대 사령탑으로 조 감독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조 감독이 이달 5일 김천 상무와의 K리그2 2라운드에서 인천 사령탑으로 마지막 경기를 치른 지 9일 만이다. 부산은 지난 시즌 K리그2 정규리그에서 김천 상무에 승점 1차로 밀려 2위에 올랐고, 승강 플레이오프에선 K리그1 수원FC를 넘지 못해 승격 기회를 놓쳤다. 이번 시즌엔 19경기에서 6승 5무 8패(승점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느껴 사의를 밝혔고, 후임 사령탑을 물색하던 부산은 최근까지 인천을 지휘했던 조 감독을 낙점했다. 선수 시절 K리그 통산 230경기에 출전한 수비수였던 국가대표 출신의 조 감독은 은퇴 이후 전북 현대 코치 등으로 일했고, 2015시즌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프로 사령탑으로 데뷔했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RomaRo
GRAND QUALITY

Alcobaça ASA WEDGE LADY

Confidence in the Short game.

Alcobaça
ASA WEDGE LADY

www.romarogolf.co.kr